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의 재생산과 코리안 슈퍼 히어로물의 탄생, 그리고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의 서사코드적 차이

권도경*

1. 문제 설정의 방향
2. 한국고전영웅서사코드의 부모·형제 트라우마 치유 문제와 K-슈퍼히어로물의 출발
 - 1) 부모 트라우마의 극복 문제와 K-슈퍼히어로의 숙명:한국고전영웅서사코드의 출발점과 종착점
 - 2) 형제 트라우마의 해결 문제와 K-슈퍼히어로의 성장:한국고전영웅서사코드의 전개점
 - 3) 부모·형제 트라우마 치유의 민중적 집단 트라우마 치유로의 확산과 K-슈퍼히어로물의 완성
3. 코리안 슈퍼히어로물과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코드적 차이
4. 나오는 말-한국언어문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입안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슈퍼히어로물의 서사원형을 한국고전서사에서 찾고 이를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 비교하여 서사코드적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한국슈퍼히어로물의 고유한 서사적 정체성의 일단을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에서 세계의 문제는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모·형제 트라우마(trauma) 문제로 치환되어 있다. 세계의 일부인 적대자는 내 가족의 일부인 부모이거나 형제이며, 나의 개인적·집단적 가치의 실현

*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은 부모·형제 트라우마에 의해 촉발된다. 부모 트라우마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다. 자식인 영웅의 일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트라우마에 대응하여 그것을 치유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어떤 식이든 부모가 세계의 질서에 대응하는 방식은 자식의 영웅적 과업 성취 과정 내내 일종의 카운터 파트(counter part)로 작용한다. 부모 트라우마는 현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형제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치유된다. 형제 트라우마는 영웅인 자식의 이념이 형제의 그것과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는 트라우마다. 형제와 나는 부모의 자식들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현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 나는 부모가 만들거나 주도하는 세계의 법칙을 전복시키고자 하고, 형제는 그것을 수호하고자 한다. 내가 히어로인 자식이 되고 나의 형제는 안티히어로인 자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에서 영웅인 내가 부모·형제의 이념에 대립각을 세우며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념은 민중적인 지점에 입각해 있다. 여기서 민중은 내 부모·형제와 남의 부모·형제를 포함한 집합체로, 우리의 부모·형제들이다. 일종의 부모·형제 트라우마 치유 과정의 민중 지향적 확산이자, 집단 트라우마 치유 과정의 일부로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와 코리안 슈퍼히어로의 차이점은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야기하고 나와 대결하는 악당이 세계질서의 이념만 달리할 뿐인 반대(oppo-site)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각자 구축하거나 따르고자 하는 이념의 질서를 달리하는 영웅이 아니라 순수한 악(pure evil)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악당들은 내 부모와 이념을 달리하며 세계의 주도권을 먼저 쥐는데 성공한 남의 부모가 아니다. 의사가족관계(擬似家族關係)로 치환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악당들은 주인공인 영웅의 유사형제들이 아니다. 나의 트라우마로 전이된 부모 트라우마의 극복 과정이 형제 트라우마의 극복 문제로 연계되는 코리안 슈퍼히어로물과는 달리, 절대 악으로 존재하는 빌런들은 이념을 달리하는 의사(擬似) 영웅형제들로 치환되지

않는다. 악당들과의 대결을 통해 구원하는 대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들이 악당들로부터 구출해 내는 대상은 물리적·정신적 측면의 약자인 시민이지 계층적·사회적·정치적 측면의 약자인 민중이 아니다. 상층출신의 귀족영웅들도 계급적 약자인 민중을 구원하는 위민(爲民)의 이념 지향성을 보여주는 코리안 슈퍼히어로들과는 다르다. 부모·형제 트라우마가 집단의 문제로 확산된 계급적 차원의 민중성은 코리안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코드적 전유물인 것이다. 게다가 코리안 슈퍼히어로로는 민중을 넘어서 민족적인 차원의 총체적인 집단 트라우마 극복의 문제까지 껴안는다. 당연히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점이다.

주제어 : 한국 슈퍼히어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 빌런, 한국영웅, 신화적 영웅, 귀족적 영웅, 민중적 영웅, 서사원형, 서사코드, 미디어, 재생산, 한국고전서사, 서사코드적 차이, 서사적 정체성, 적대자, 세계질서, 시민, 민중, 부모 트라우마, 형제 트라우마, 민족 트라우마

1. 문제 설정의 방향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슈퍼 히어로(superhero)들로 넘쳐난다.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타나서 지구를 위기에서 구해낸다. 초인적인 힘과 무공을 지녔으며, 일당백으로 악당을 물리치고, 웬만한 살상무기쯤 가뿐하게 제압하여,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에는 위기로부터 세계를 구해내는 캐릭터다. 파란색 쭈쭈이 수트를 입고 애교머리를 살짝 내린 채 하늘을 나르는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슈퍼맨(superman)의 포지티브한 감수성은 오히려 고전적이다. 박쥐 두건과 수트에 복면까지 한 배트맨(batman)과 거미 수트와 복면으로 빌딩숲을 맘대로 헤치고 기어다니는 스파이더맨(spiderman)은 슈퍼맨의 긍정적인 외면의 내부에 숨어있는 다크 사이드와 인간적 고뇌를 슈퍼 히어로의 양면적 감수성으로

끄집어냈고, 바이오 생체실험의 돌연변이로 태어나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세력과 때로 대결하는 엑스맨(x-man)을 거쳐 최근에는 기존 슈퍼 히어로들이 어벤저스(avengers)라는 슈퍼 히어로 연합군까지 구성했다. 헐리우드 슈퍼 히어로들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며 캐릭터의 변형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소리다.

한국은 이러한 헐리우드 슈퍼 히어로(hollywood superhero)가 열광적으로 소비되는 대표적인 시장 중의 하나이다. 물론 슈퍼 히어로물이 한국에서 창작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애니메이션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1977)²⁾는 토종 슈퍼 히어로(korean superhero)의 대표작이고, 만화 <라이파이>(1959)³⁾는 무국적의 미국식 슈퍼 히어로의 대표작이다. 토종 슈퍼 히어로물은 세계의 위기를 한국 국적의 영웅이 구해내지만 미국식 슈퍼 히어로물은 국적을 알 수 없는 영웅이 악당에 맞서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 전자에서 전인류의 평화를 미국이 지킨다는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팍스코리아나(Pax Koreana)로 대체된 것이 전자라면, 후자는 한국에서 창작되었다 뿐 탈국가적이다. 전자가 슈퍼맨의 망토나 배트맨의 복면에 비견되는 태권도·한복 등 한국적인 문화원형(cultural archetype)을 상징적인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후자의 경우는 미국인에 의해 세계적으로 소비되던 헐리우드 슈퍼 히어로의 제작진과 향유지역이 한국의 그것으로 바뀐 것 외에는 헐리우드 슈퍼 히어로물의 기존 문법을 특별히 서사적으로 발전시킨 면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나마도 후자는 코리안 슈퍼 히어로물의 전성기인 60~80년대를 넘어가면 명맥이 뚝 끊긴다. 헐리우드 슈퍼 히어로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체 내적인 전승사 속에서 변용과 해체, 그리고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시대를 거듭해도 향유층의 구미에 맞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딴 판이다.

반면, 토종 슈퍼 히어로는 2000년대에도 명맥이 이어졌다. 영화 <아라한 장풍대작전>(2004)⁴⁾이나 드라마 <쾌도 홍길동>(2008)⁵⁾이 대표적이

2)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감독:임정균, 1977.

3) <라이파이>, 작가:김산호, 1959.

다. 애초에 <아라한 장풍대작전>은 애니메이션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의 이 시대에 맞는 실사화를 목표로 만들어졌고 남녀주인공의 이름도 그대로 마루치와 아라치이다. 후자는 고소설 <홍길동>을 원작으로 한 고우영의 만화 드라마이다. 뿐만 아니라 고소설 <전우치>는 영화 <전우치>(2009)⁶⁾와 드라마 <전우치>(2012)⁷⁾로 최근까지 잇달아 미디어문학화 되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이들 토종 슈퍼 히어로물의 흥행 성적은 높은 편이 아니다. <아라한 장풍 대작전>은 각종 영화제상을 받았지만 국내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드라마 <꽤도 홍길동>이나 드라마 <전우치>은 10%대 시청률에 머물러 소위 국민드라마 반열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몇 편의 토종 슈퍼 히어로물이 드라마 시청자층을 후끈 달궜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2011)⁸⁾, 드라마<각시탈>(2012)⁹⁾, 그리고 영화 <최종병기 활>(2011)¹⁰⁾이다. 내러티브가 미디어에 얹혀서 향유되는 이들 미디어문학(media literature)¹¹⁾들 속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토종 슈퍼 히어로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부모·형제 트라우마(trauma)의 극복과 민중과의 집단성 구축 과정에서부터 코리안 슈퍼 히어로물의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부모의 트라우마가 주인공 영웅의 일생을 지배하기는 하지만 형제 트라우마로 확대되지 않으며 적대자가 주인공과 세계의 이념을 달리할 뿐인 또 다른 영웅이 아니라 절대 악인 빌런(villain)일 뿐이고, 주인공이 영웅이 아닌 일반인을 돕기는 하지만 그들이 민중이 아닌데다 영웅과의 집단적 연대

4) <아라한 장풍대작전>, 감독:류승완, 2004.

5) <꽤도 홍길동>, 연출:이정섭, 극본:홍미란·홍정은, 2008.

6) <전우치>, 감독:최동훈, 2009.

7) <전우치>, 연출:강일수·박진석, 극본:조명주·박대영, 2012.

8) <뿌리깊은 나무>, 연출:장태유·신경수, 극본:김영현·박상연, 2011.

9) <각시탈>, 연출:윤성식·차영훈, 극본:유현미, 2012.

10) <최종병기 활>, 감독:최한민, 2011.

11) 내러티브가 구연되거나 몸짓으로 전달되지 않고 활자매체·방송매체·인터넷매체에 실려서 향유되는 문학을 미디어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성마저 부재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의 서사코드(narrative code)적 차이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코리안 슈퍼 히어로물의 서사코드적 정체성은 부모·형제 트라우마가 민중적인 집단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 혹은 역사적 트라우마(historical trauma)로 확산되어 치유되어가는 한국고전영웅 서사원형(koran classical narrative archetype)에 기반 한 것이다. 즉, 한국인에게만 전승되는 서사유전자(narrative gene)가 발현시킨 한국고전서사원형에 기반한 서사코드가 된다는 것이다.¹²⁾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은 이러한 한국적 서사 코드(code)에 대한 탐구가 국수주의(國粹主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코리안 슈퍼히어로 각시탈의 성립은 제작진이 밝히고 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그 흥행성을 인정받아온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의 성공방식을 수용하여 내면화 한 위에서 이루어졌다. 민족과 국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첨단이거나 혹은 흥행거리라고 생각되는 문화의 캐릭터나 내러티브, 소재나 미장센 등을 수용해 들이는 이른바 탈경계적(脫境界的) 상상력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탈경계적 상상력이 단순한 모방이나 혼용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한단고기』식의 무조건적인 K-제국주의(korean imperialism)적인 관점만큼이나 단순한 비빔밥

12) 서사유전자·서사원형·서사코드, 미디어문학·미디어소설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전작 논문들에서 구체적으로 이론화 해서 밝혀놓은 바 있다. 참고해 주기 바란다. 권도경, 「동북아(東北亞) 한류드라마 원류로서의 한국고전서사와 한(韓)·동북아(東北亞)의 문학공유 경험」, 『동아연구』 제33권 제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 권도경, 「고소설 <장화홍련전> 원형서사의 서사적 고정관념과 영화 <장화, 홍련>에 나타난 새로쓰기 서사전략」, 『비교문학』 61, 한국비교문학회, 2013 ; 권도경, 「애정전기소설의 서사코드와 한류드라마 <가을동화>-한국언어문학의 형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교육을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 권도경, 「아기장수전설의 서사가지(narrative tree)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선택지, 그리고 드라마 <각시탈>의 아기장수전설 새로쓰기」,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013 ; 권도경, 「동남아 한류드라마의 한국고전문학 재생산과 한(韓)·동남아(東南亞) 서사코드」, 『아태연구』 20권 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3 ; 권도경, 「병란(丙亂) 트라우마 대응 고소설에 나타난 향유층의 집단서사와 영화 <최종병기 활>」, 『고전문학교육』 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성 차원의 하이브리드(hybrid) 논의도 위험하다. 기준점이 없는 국수주의나 탈경계적 관점은 기실, 21세기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논하는 논의에서 둘 다 지양해야 하는 지향점이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탈경계적 상상력의 결과물로 이전 시대에 출현했었던 헐리우드식 한국 슈퍼히어로물이 진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아동 전용이라는 폄하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데 비해, 최근의 코리안 슈퍼히어로물들이 헐리우드적 감수성에 길들여져 있는 21세기 한국인에게 조차 쿨(cool)하게 세계화 되어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에 손색없는 영웅물이되 한국적인 영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향유층에게 한국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코리안 슈퍼히어로물들의 서사적인 유전형질(narrative genetic trait)을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언어문학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법·영상이미지·상업자본 등을 제외한 서사적인 형질의 문제가 된다. 아기장수전설이나 영웅일대기와 같은 한국적인 서사코드(narrative code)는 탈경계적 상상력을 세계적이되 동시에 한국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서사적인 프리즘(narrative prism)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코리안 슈퍼히어로물을 헐리우드 슈퍼 히어로물과 분지시키는 서사코드의 한 중요한 지점이 부모·형제 트라우마와 민중의 집단 트라우마 치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슈퍼히어로물의 서사원형을 한국고전서사에서 찾고 이를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 비교하여 서사코드적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한국슈퍼히어로물의 고유한 서사적 정체성의 일단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¹³⁾

13) 현재까지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에 관한 문학적인 접근은 단 한 편도 제출된 바가 없다.

2. 한국고전영웅서사코드의 민중적 집단 트라우마 치유 문제와 K-슈퍼히어로물의 확산

1) 부모 트라우마의 극복 문제와 K-슈퍼히어로의 속명:한국고전영웅 서사코드의 출발점과 종착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일단 전제해두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으로 대체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의 대표격은 두 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는 신화적 영웅서사(神話的 英雄敍事)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적 영웅서사(民衆的 英雄敍事)이다. 전자는 영웅의 일생으로 불려온 영웅의 일대기다. <바리공주>와 같은 무속신화나 <주몽신화>와 같은 건국신화에 기원을 두며, 조선조 영웅소설로 이어져온 계열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귀한 혈통을 타고 난 비범한 주인공이 비정상적으로 출생해서 기아(棄兒)로 시련을 겪다가 구출되어 투쟁에서 승리한 뒤 성공한다는 이야기의 패턴이다.¹⁴⁾ 반면, 후자는 아기장수전설의 서사에 기원을 둔다. 날개를 징표로 지닌 민중영웅이 민가에서 태어났는데 역적이 될까 두려워한 부모에게 살해당한다는 이야기의 패턴이다.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가족이 아닌 2차 집단에 속한 기득층과 대결을 벌이는데 친지의 배신으로 죽는 비극적인 결말로 되어 있다고 통상적으로 논의되어 왔다.¹⁵⁾

전자가 신이 되는데 성공한 신의 아들이 겪어내는 영웅담에 기원을 둔다면, 후자는 신이 되는데 실패하여 민중으로 남은 민중의 자식이 겪어내는 영웅담이다. 신이 되는데 성공하면 상층의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민중의 영웅이 된다. 신성 성취의 성공 여부를 서사의 선택지(narrative

14)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97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15) 이에 대해서는 최래옥,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한국설화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1, 한국민속학회, 1979 ; 천혜숙, 「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choice)¹⁶⁾로 하여 나누어지는 상층영웅(上層英雄)과 민중영웅(民衆英雄)은 결국 한 영웅의 다른 부면이 된다고 할 수 있다.¹⁷⁾ 신화적 영웅(神話的英雄)과 민중적 영웅(民衆的英雄)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다른 서사가지라는 사실은, 양자 공히 부모 트라우마(trauma)로부터 출발하여 형제 트라우마 문제로 확장된다는 사실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전자에는 신화가 아닌 영웅소설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영웅소설의 양반 가문은 신화의 신계(神系) 가문이 세속화 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이 되는데 실패한 민중 출신 하층영웅서사의 대척적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귀족적 영웅은 신화적 영웅이 속화된 상층영웅이라는 것이다.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에서 세계의 문제는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모·형제 트라우마(trauma)의 문제로 치환되어 있다. 세계와 영웅인 나 사이의 갈등관계는 나와 부모·형제의 가족 관계 내부에서 설명이 된다. 세계의 일부인 적대자는 내 가족의 일부인 부모이거나 형제이며, 나의 개인적·집단적 가치의 실현은 부모·형제 트라우마에 의해 촉발된다. 나의 영웅으로서의 탄생은 부모·형제 트라우마를 치유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형제 트라우마는 부모 트라우마의 부산물이다. 나와 부모 사이의 부자관계가 나와 형제 사이의 형제관계를 결정지으며 형제 트라우마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형제 트라우마를 극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모 트라우마는 치유의 종착점에 도달한다. 부모 트라우마는 한국고전영웅서사코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것이다.

부모 트라우마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다. 부

16) 서사의 선택지(narrative choice) 개념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권도경, 「아기장수전설의 서사가지(narrative tree)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선택지, 그리고 드라마 <각시탈>의 아기장수전설 새로 쓰기」,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013을 참조하기 바람.

17) 천혜숙은 일찍이 아기장수전설이 건국신화가 되는데 실패한 이야기로, 특히 제2유형의 경우는 <주몽신화>와 유사한 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천혜숙, 「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을 참조하기 바람.

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명징적인 억압이나 암묵적인 강요가 자식에게 드리우는 정신적인 상흔을 의미한다. 부모가 가하는 직간접적인 억압·강요는 영웅인 자식의 삶을 평생 지배하며 놓아주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식인 영웅의 일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트라우마에 대응하여 그것을 치유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영웅적인 과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으로 부모가 개입한다거나, 세계에 대한 부모의 대응방식과 자식의 그것이 충돌한다거나, 부모가 구축한 질서가 자식의 영웅적인 과업에 장애가 된다거나 하는 식이다. 어떤 식이든 부모가 세계의 질서에 대응하는 방식은 자식의 영웅적 과업 성취 과정 내내 일종의 카운터 파트(counter part)로 작용한다. 여기서 신화적 영웅과 민중적 영웅은 부모의 캐릭터, 즉 부모와 세계와의 관계,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의 이행 방식에 따라 분기된 서사가지의 대척점에 위치하게 된다.

우선, 신화적 영웅서사의 경우다. 신화적 영웅서사의 부모 트라우마를 민중적 영웅서사의 그것과 분지시키는 서사적 변별점(narrative distinctiveness)은 영웅인 자식의 부모 또한 자식과 같은 하나의 영웅이라는데 있다. 신화적 영웅의 부모는 자식 보다 한 세대 앞서 먼저 영웅의 일생을 산 이전 세대의 영웅이다. 영웅의 일대기를 거쳐서 신이 되는데 성공한 영웅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기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영웅이다. 현재, 자식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의 주인이 바로 부모라는 얘기다. 당연히 이 기존 질서를 움직이는 이념은 바로 부모의 것이다.

문제는 자식인 영웅이 기존 질서를 움직이는 부모의 이념에 순응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자식인 영웅의 이념은 부모의 이념과 상충된다. 신이 되는 영웅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식인 영웅에게 자기 이념에 따르도록 억압하거나 자기 질서에 순응하도록 강요하고, 부모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부모가 설득에 의한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 자기 법칙을 강제하는 데서 부모에 의한 자식의 트라우마가 발생한다.

자식은 이러한 영웅인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자기 질서를 성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영웅으로 탄생된다. 영웅인 자식은 자신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성립시켜서 부모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거나, 부모의 질서로부터 분리되어 그의 이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중심이 된 질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간다.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는 자식인 영웅에게 적대적인 시련인 동시에, 차별적인 이념의 정체성을 성립시켜 새로운 질서를 창안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는 셈이다. 한편,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는 직접적으로 싸워서 극복할 수 없다는데 그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 부모가 가한 트라우마의 극복이 부모 살해나 직접적인 대결이 아니라 자식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질서 구축을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자간의 윤리 문제 때문이다. 이처럼 대립하되 투쟁하여 직접적으로 부모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대결하지 못한다는데, 영웅인 부모가 역시 영웅이 될 자식에게 가하는 트라우마의 또 다른 차별적 정체성이 위치한다.

예컨대, <주몽신화>에서는 주몽이 살고 있는 동부여란 세계의 현 주인인 금와왕이 바로 영웅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부모가 된다. 대신 영웅인 자식의 친부모가 아니라 의붓부모다. 혈연이 섞여있지 않지만 내 모친의 남편이 되는 부모다. 친부모와 남의 부모 사이의 중간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신이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몽은 의붓부모인 금와왕이 만든 현 동부여의 질서에 선천적으로 순응할 수 없는 새로운 이념의 소유자다. 금와왕이 구축해 놓은 현 질서와 주몽이 미래에 성립시킬 질서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금와왕이 알로 태어나 탄생 직후부터 비범성을 보이는 주몽을 내다 버리는 것도 주몽이란 존재가 자신이 만든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자신의 대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금와왕의 주몽 유기(遺棄)는 본질적으로 살의(殺意)를 내포하고 있다. 미래 세계의 주인이 될 아기를 현 세계의 주인이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다. 만약 이 의도가 관철된다면 주몽은 비록 태생은 다르지만 종말은

민중영웅인 아기장수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주몽이 금와왕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맺었다면 그의 출신 신분 역시 수정되어 신화적 영웅에서 민중 출신의 영웅으로 변경되었을 것이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아기장수란 성공했다면 신성혈통의 신화적 영웅이 되었겠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민중혈통의 영웅으로 남은 신화적 영웅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주몽이 신화적 영웅으로 남은 것은 의붓부모에게 살해당할 뻔 한 위기에서 구해주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출·양육되어 살아남는데 성공한 주몽은 금와왕의 질서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의붓부모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한다. 대신 이주한 세계에서 남의 부모와 투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념을 실현한 새로운 질서를 창안한다. 신화적 영웅일대기에서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 극복은 분리하는 방식으로 의붓부모가 강제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해나가며, 이 과정에서 영웅으로 탄생된다. 드라마 <주몽>은 이러한 주몽의 신화적 일생을 매체에 얹혀진 일종의 미디어소설(media novel)로 재생산 해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자식인 영웅의 부모가 친부모냐, 아니면 남의 부모냐는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의붓부모가 친부모가 되면 영웅일대기로 전개되기 이전 단계의 신화적 영웅서사인 <단군신화>가 된다.¹⁸⁾ 널리 인간세상을 복되게 하는 새로운 이념을 지닌 환웅은 하늘의 질서를 지배하는 아버지 환인의 이념에 반하는 존재다. <주몽신화>와의 차이점은 이러한 부자 사이의 이념의 차이가 자식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단군신화>의 환웅은 아버지가 자기 이념에의 순응을 강요하기 전에 발 빠르게 아버지가 주도하는 질서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이동한다. 환웅이 옮겨온 세계는 주도적인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 질서 성립 이전의 세계다. 아버지와 이념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18) <단군신화>는 기아(棄兒)와 구출·양육, 고난과 시련<주몽신화>와 같은 영웅일대기로 구체화되기 이전 단계의 신화적 영웅담이다.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지만, 분리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자식의 트라우마가 초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고전영웅서사에서는 이 친부모에 의한 자식의 트라우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다. 대신, <단군신화>가 함축하고 있는 이 문제의 소지는 <세종신화>를 현대적으로 재생산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와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전 시대 신화적 영웅인 아버지가 만든 태종조선의 질서를 세종조선의 구축을 통해 해체해 나가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부모 트라우마의 극복 과정이 주인공을 영웅으로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준다. <단군신화>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와서 미디어소설로 이행되면서 친부모에 의한 자식의 트라우마 문제를 소설적으로 확장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붓부모가 남의 부모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되면 신화적 영웅서사는 영웅소설적 영웅일대기로 장르가 이동하게 된다.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내 부모가 아니라 남의 부모가 가한 트라우마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영웅으로 탄생하는 자식이다. 그런데 이 남의 부모가 가한 트라우마는 주인공 영웅인 나의 것인 동시에, 내 부모의 것이기도 하다. 주인공인 영웅은 남의 부모에 의해 야기된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나의 것으로 이어받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성공한 영웅이 된다. 무슨 말이고 하니, 영웅소설적 영웅일대기에서 남의 부모와 나의 부모는 현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격돌하는 두 명의 영웅이다. 전자인 남의 부모는 현 세계의 기득권을 쥐는데 성공한 영웅이고, 후자의 내 부모는 기득질서로부터 밀려나 궁극적으로 패배한 영웅이다.

문제는 남의 부모에게 내 부모가 패배하면서 발생한다. 남의 부모와 내 부모의 이념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내 부모는 신화적 영웅이 만든 세상의 법칙을 주도할 권력을 획득하는데 실패하는 반면 남의 부모는 내 부모를 몰락시키고 신화적 영웅이 만든 세계의 질서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데 성공한다. 나의 트라우마는 남의 부모에 의해 내 부모가 겪

은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받아 안으면서 시작된다. 내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와의 차이점은 강제성이 없다는데 있다. 내 부모와 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모와 내 부모가 충돌한 결과인 내 부모의 트라우마가 나의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죽음 혹은 가족의 해체에서 비롯된 기아와 유라·걸식의 경험이 자식인 영웅의 트라우마 내용을 구성하며, 평생 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자식인 영웅의 행로는 남의 부모와 대결하여 승리함으로써 해체된 가족을 회복하고 몰락한 가문을 재건하여, 남의 부모가 나의 부모에게 안겨준 패배의 트라우마를 치유해나가는 여정이다. 예컨대, 영화 <최종병기 활>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영웅소설적 영웅서사원형을 현대적으로 재생산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조의 수구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남의 부모들에 의해 광해군의 진보적인 이념을 고수하고 있었던 내 부모가 살해당하고 가문이 멸문당한 부모의 트라우마를, 내 부모의 유사형제인 친구들에게 구출·양육되어 성장한 귀족영웅이 국가와 민족을 국난(國難)으로부터 구하는 행로 속에서 치유해 나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민중적 영웅서사의 경우다. 민중영웅인 자식의 부모는 영웅이 아니다. 신화적 영웅이 만들고 영웅소설적 영웅이 관리하는 세계의 질서에 지배받는 피지배 계층이다. 이 민중영웅의 부모는 신화적 영웅과 영웅소설적 영웅이 만들고 관리하는 세계의 법칙을 내면화 한 존재다. 이들의 이념은 세계의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영웅이라는데 있다. 그것도 현 세계의 질서를 만든 신화적 영웅과 대등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영웅이다. 현 세계의 질서를 관리할 주도권을 두고 영웅소설적 영웅과 대결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투쟁해서 승리할 경로를 탐색이라도 해보게 놓아두겠는데, 자식의 능력이 새로운 질서를 창안할 수 있을 정도의 클래스라는 게 문제다. 현 세계의 질서에 따르고자 하는 순응을 자기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중 출신의 부모는 자식이 현 세계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고자 하는 부모가 가진 자식에 대한 살의가 바로

민중영웅의 일생을 지배하는 트라우마의 실체다.

아기장수서사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트라우마는 한국고전서사원형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아기장수서사의 기본형에서 자식인 민중영웅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곧바로 살해당하기 때문이다. 신화적 영웅이 만든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고자 하는 부모의 이념이 새로운 민중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기장수의 이념을 압도하기 때문에 자식의 비극이 탄생하는 것이다. 조력자라도 있다면 구출·양육 되어서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신화적 영웅이라도 될 텐데, 원천적으로 조력자가 부재한 아기장수에게는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당장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미리 확보한 남의 부모와 대결하여 패배한다. 게다가 나의 부모가 민중영웅인 자식을 배신하고 은거지를 누설함으로써 남의 부모와 결탁하여 트라우마를 안긴다. 남의 부모와 공모하여 간접적으로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가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바로 민중적 영웅서사가 신화적 영웅서사에 대해 가지는 서사적 변별 지점 중의 하나다.

그런데 아기장수서사가 매체에 얹혀져 일종의 현대적인 미디어소설(media novel)로 재생산 된 드라마 <각시탈> 같은 작품으로 전개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내 부모가 자식의 원조자가 되는 변형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자식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지점에서부터 서사가 출발한다. 내 부모는 자신과 자식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남의 부모가 내 자식에게 강제하는 이념에 맞서 내 자식을 돕는다. 내 부모가 자식인 민중영웅의 이념에 동조하는 것으로 변모한 결과 둘은 항일(抗日)과 위민(爲民)이라는 이념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대신 민중영웅인 자식은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남의 부모들이 내 부모에게 준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트라우마로 계승해서 극복하기 위해 싸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의 부모에 의한 내 부모의 트라우

마가 고스란히 자식인 영웅의 트라우마로 전이 되는 것은 영웅소설적 영웅의 일생이다. 아기장수서사가 설화의 시대에서 매체의 시대로 이동하면서, 민중영웅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설화에서 소설로의 장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각시탈>의 1대 각시탈 이강산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드라마 <각시탈>의 2대 각시탈 이강토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친일(親日) 이념의 노선을 걸으면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남의 부모들과 결탁하고, 부모의 항일 이념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안긴다. 정치적인 윤리성이 남의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있는 만큼 일견 안티히어로 같게도 보인다. 하지만 친일의 길을 걷는 것도 자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의 부모에 의해 몰락한 가문을 재건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남의 부모가 야기한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면의 상반된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남의 부모가 만들고 유지하는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서 친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와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택한 순응이라는 점에서 순응이 아닌 순응이다. 2대 각시탈 이강토가 남의 부모가 만든 질서에 의해 내 부모가 희생당하는 순간 표면적인 순응을 접고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나의 트라우마로 받아 안는 영웅 캐릭터로 전변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내면의 이중성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2) 형제 트라우마의 해결 문제와 K-슈퍼히어로의 성장:한국고전영웅 서사코드의 전개점

부모 트라우마는 현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형제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치유된다. 형제 트라우마를 해결해서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거나 체제의 주도권을 획득하여 부모가 되는데 성공함으로써 부모 트라우마의 치유는 완성되는 것이다. 형제 트라우마는 영웅인 자식의 이념이 형제의 그것과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는 트라우마다. 형제와 나는

부모의 자식들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현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 나는 부모가 만들거나 주도하는 세계의 법칙을 전복시키고자 하고, 형제는 그것을 수호하고자 한다. 형제가 부모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를 방해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러한 형제와 대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형제는 현 세계의 주인이거나 혹은 그 주도권을 두고 다른 부모와 다투는 영웅인 부모의 자식들로, 나와 같은 영웅의 일생을 살아갈 조건을 타고 났다. 다만 향유층의 이념적 공감을 사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히어로인 자식이 되고 나의 형제는 안티히어로인 자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화적 영웅서사의 대표적인 <주몽신화>에서 영웅인 나의 형제는 이전 세대 영웅인 금와왕의 혈통을 계승한 대소왕자이다. 대소왕자는 주몽의 의붓부모가 되는 금와왕의 자식으로, 신화적 영웅일대에서 영웅에게 트라우마 상황을 제공하는 형제가 된다. 이전 세대의 영웅인 금와왕의 혈통을 계승한 적통왕자로, 금와왕이 만든 동부여의 건국이념을 중심으로 보면 신화적 영웅일대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주몽신화>의 건국이념은 주몽이 만든 고구려의 그것이다. <주몽신화>의 세계질서가 고구려의 건국이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소왕자는 주인공 영웅과 상충하는 세계 질서에 순응하는 적대적인 의붓형제가 되는 것이다. 의붓형제이되 말 그대로 영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영웅으로서의 안티히어로이다. 게다가 주몽이 동부여의 체제 속에 머무른다면 대소왕자는 금와왕 다음 세대의 질서를 주도할 수가 없다. 다음 세대의 질서를 주도하는 영웅은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소는 주몽에게 직접적인 분리와 이주, 고난과 시련이라는 트라우마의 원인을 제공하는 의붓형제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붓형제가 영웅에게 주는 트라우마는 부모 트라우마의 파생물이다. 주몽은 이 의붓형제가 가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 트라우마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 형제 트라우마와 부모 트라우마는 순환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다.¹⁹⁾ 드라마 <주몽>에서도 이

러한 서사원형의 형제 트라우마 구현 양상은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영웅소설적 영웅서사는 좀 다르다. 남의 부모가 만들고 주도하는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남의 부모의 자식이 바로 영웅과 대결하는 형제다. 일종의 의사형제(擬似兄弟)가 된다. 남의 부모의 자식이지만 세계의 질서에 대응하는 이념이 주인공 영웅과 다를 뿐이다. 이전 세대의 질서를 주도하는 영웅의 자식이거나 그 체제에 순응하는 남의 부모의 자식으로, 다른 이념의 세계관 속에서 보자면 영웅이 될 수 있다. 단지 해당 작품이나 유형을 향유하는 작가와 독자층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신화적 영웅서사를 매체에 얹어서 영웅소설적으로 재생산 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주몽신화>의 의붓형제가 영웅소설의 의사형제로 대체되어 있다. 그러나 표면상이다. 안티히어로 정기준은 남의 부모의 자식으로 영웅인 나와 대결하는 의사형제이면서도 이념적인 혈연성을 공유하고 있는 영웅인 나의 클론에 가깝다. 정기준의 백부인 정도전은 남의 부모이면서도 내 부모의 왕권전제주의(王權專制主義)에 반대하는 민주적 의론주의(議論主義)란 이념을 심어준 이념적인 부모다. 동시에 민주적인 의론주의를 신권전제(神權專制)로 할 것이냐 왕의 주도하에 민권자율(民權自律)로 할 것이냐에 따라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남의 부모이기도 하다. 이 정도전의 이념적 자식인 정기준은 신화적 영웅인 내 부모가 만든 현 질서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 이념적인 부모의 정치적 자식이라는 점에서 이념적인 의붓형제가 된다. 새 질서 창안이라는 세종과 같은 신화적 영웅의 원형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질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이념적 지향에서 세종과 다른 길을 고르는 바람에 시대적 의지의 방향성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의사형제이기도 하다. 애초에 정기준의 신화적인 능력은 세종을 압도하기까지 한다. 대신, 정기준은 대결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세종이 세종조선의 종착점인 민본조선(民本朝鮮)의 이념을 확립하도록 이끄는 의사

19) 본격적인 신화적 영웅일대기로 발전하지 못한 <단군신화>에는 형제 트라우마가 영웅이 직면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

형제이기도 하다. 군사적인 왕권독제 대신에 새로운 위민(爲民)의 이념을 다른 방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기준의 신념과 의지는 그의 능력이 신출귀몰하고 타인에 대해 설득력이 있을수록 세종에게는 더욱 커다란 트라우마가 된다. 세종은 애초에 자신을 압도하던 정기준이 가하는 압박에 대항하고 그가 던지는 수수께끼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적 질서를 완성해 나간다. 의사형제가 준 트라우마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곧 부모 트라우마를 치유해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민중적 영웅서사의 대표적인 아기장수서사원형에서는 원칙적으로 내 형제에 의한 형제 트라우마는 없다. 주인공 영웅을 패배시키는 의사형제들은 모두 남의 부모가 만든 질서에 순응하는 남의 부모의 자식들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주인공 영웅인 나와 이념을 공유하는 친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남의 부모의 자식인 의사형제들 보다 훨씬 친형제들에 근접해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이 나와 공유하던 이념을 바꾸어 주인공을 배신하며, 주인공 영웅을 죽이고자 하는 내 부모의 삶과 이념의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데서 비극성이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기장수서사원형을 미디어소설로 재생산한 <각시탈>의 경우는 양상이 보다 복잡하다. 일단, 1대 각시탈인 이강산을 패배시키는 것은 자신의 친형제인 이강토로, 아기장수서사원형의 형제관계를 친형제의 그것으로 변형시켰다. 이강토는 남의 부모들의 집합체인 일제가 만든 친일이념을 내면화 한 수호자로, 일제강점기 아기장수인 1대 각시탈과 세계의 이념을 달리하는 남의 부모의 자식들과 집단적으로 연대해 있다. 그런데 이강토는 자신이 내면화 한 친일의 이념이 친형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형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친일의 이념을 버리고 친형의 항일 이념을 받아들임으로써 2대 각시탈이 된다. 친형을 죽인 친일의 이념은 항일의 이념을 수호하던 친부모를 죽인 남의 부모·형제들의 이념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에서, 부모 트라우마가 형제 트라우마로 전이되는 아기장수서사원형의 가족관계 중심의 서사코드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아기장수로 각성한 2대 각시탈 이강토는 남의 부모의 자식

들인 키무라 형제들과 대결하게 되는데, 이들 형제 중 동생은 이강토와 혈육과도 같은 의사형제관계를 맺고 있던 존재였다는 점에서 친지가 배신의 적대자가 되는 아기장수서사원형의 서사코드 내부에 있다. 게다가 이들 적대자 형제들은 친일의 세계질서 속에서는 민족적 영웅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아기장수 이강토와 세계질서의 이념만 달리 할 뿐인 반-영웅성을 지닌다.

3) 부모·형제 트라우마 치유의 민중적 집단 트라우마 치유로의 확산과 K-슈퍼히어로물의 완성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에서 영웅인 내가 부모·형제의 이념에 대립각을 세우며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념은 민중적인 지점에 입각해 있다. 민중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부모의 자식이자 형제의 또 다른 형제인 영웅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이다. 여기서 민중은 내 부모·형제와 남의 부모·형제를 포함한 집합체로, 우리의 부모·형제들이다. 일종의 부모·형제 트라우마 치유 과정의 민중 지향적 확산이자, 집단 트라우마 치유 과정의 일부로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본주의(民本主義) 이념의 구현을 통한 부모 트라우마의 궁극적인 치유다. 이 민중지향적인 위민(爲民)의 이념이 영웅에게 부모·형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양상은, 영웅일대기로 완성되기 이전 단계의 신화적 영웅서사에서부터 확인된다. 예컨대, 신화적 영웅서사인 <단군신화>에서 환웅(桓雄)이 위신(爲神)의 이념으로 설립된 아버지 환인(桓因)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고 새롭게 개창하고자 하는 질서의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민본주의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민중성에 입각해 있다. 상하의 계층질서 속에서 축적되어 있는 계층하부 인간들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영웅의 민중 지향적인 이념이 되는 것이다.

기실, 영웅일대기를 구조적으로 완성시킨 <주몽신화> 이후로 전개되

어온 신화적인 영웅서사에서 민중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지향하는 이념이 영웅의 익숙한 정체성으로 존재해 왔던 것은 아니다. 위민의 민중 지향적 이념은 신화적인 영웅서사에서 쉽게 찾기 어렵다. 새로운 질서를 창안한 집단이 민중 위에 군림할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목적성 이외에 위민의 이념적 의지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신화적 영웅서사를 현대적으로 재생산한 일련의 미디어소설들에서는 이러한 민중의 집단 트라우마를 대신해서 치유해주고자 하는 이념적 지향성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다. 원형서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향성이다. 예컨대, 드라마 <주몽>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드라마 <주몽>은 아버지 해모수가 기존 세계의 질서를 만든 주인인 남의 부모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입은 부모 트라우마에 민중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엮었다. 고조선 멸망 후, 유민(流民)으로 떠돌면서 중국 한(漢) 나라가의 지배하에 핍박을 받고 있던 민중들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한사군과의 투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이념적 지향성을 해모수를 통해 그렸다. 여기서 해모수는 한나라가 지배하는 동북아의 질서를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신화적인 영웅이되, 자기 민족이 처한 피지배의 집단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자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민중적인 영웅으로 확대된다. 남의 민족에 의한 내 민족의 집단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우리의 민중영웅이다. 따라서 주몽이 남의 부모에 의한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신화적 영웅일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고구려 창업의 행로에는 내 민족의 집단 트라우마의 치유 문제가 맞물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드라마 <주몽>과 같은 미디어소설들은 신화적 영웅서사의 원형에서 주조를 이루고 있지 않았던 민중적 집단 트라우마의 문제를 새롭게 창안해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다. 리터러시(literacy)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서사를 문자에 의한 축자적(逐字的)인 차원뿐만 아니라 향유에 의한 상황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주를

확대해 놓고 본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주몽신화>는 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건국신화적 향유의 맥락이 해체되었다가, 고려조에 와서 원(元) 나라의 침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동명왕편(東明王篇)>으로 개작됨으로써 민족적인 신화로 향유의 맥락이 재구성되었다. 대중국적(對中國的) 대치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밀리지 않는 파위를 자랑했던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민족신화의 맥락으로 향유의 차원을 확대함으로써 민족적인 집단 트라우마를 극복할 정신적 기준점을 마련코자 했던 것이다. 축자적인 서사의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동명왕편>에도 민중적인 트라우마가 부재하지만, 향유 목적과 방식을 포함한 서사의 차원에서 보자면 민족적인 집단 트라우마 치유의 문제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방향으로 확장되어온 <주몽신화>의 재창작사(再創作史)가 드라마 <주몽>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영웅소설적 영웅서사원형에서는 부모·형제 트라우마의 민중적 집단 트라우마 치유 차원으로서의 확산이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특정한 민족적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지배의 계층적인 차원이다. 전자는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적 집단 트라우마 치유 의지가 부모·형제 트라우마를 민중 트라우마와 만나게 한 것이다. <박씨전>처럼 상층영웅인 경우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추녀라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태어나 시집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박대를 당하지만, 병자호란이라는 민족적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민족적 영웅이 됨으로써 부모·형제 트라우마도 궁극적으로 치유하는 형태다. 대신 현재까지도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남은 병란 트라우마를 허구의 세계에서 극복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술과 같은 초현실적인 판타지를 동원한 경우다. 한편, <임경업전>·<김덕령전>(『임진록』 소재)처럼 민중영웅인 경우는, 민중출신의 영웅이 남의 부모·형제들의 집합체인 남의 민족이 내 부모·형제들의 집합체인 내 민족에게 가한 병자호란·임진왜란의 트라우마를 해결해나가는 능

력을 발휘하지만, 내 민족의 일부인 의사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형태다. 민중의 집단적 트라우마는 치유의 가락을 잡아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형제들이 민중영웅인 나에게 극복 불가능한 비극적 죽음을 안겨주며 서사가 닫힌다는 점이 <박씨전>과 다르다. 아기장수서사가 국란이라는 민족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한 실존 역사적 인물의 지평과 만나 소설화 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란의 상흔을 허구적인 세계에서라도 대신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재하다. 그 만큼 현실 세계가 강제하는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 영화 <최종병기 활>처럼 국난의 민족적 집단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미디어소설의 문학사적 지표는 <박씨전>과 <임경업전>·<김덕령전> 사이가 된다.

후자는 하층 민중이 상층 기득층에게 억압받고 착취 당해온 피지배의 계층적인 트라우마를 민중영웅인 내가 민중을 대신해서 치유해 주고자 하는 경우다. 부모·형제가 나에게 준 트라우마는 민중의 계층적인 트라우마를 기득층 응징을 통해 대신 해결해 줌으로써 민중영웅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고소설 <홍길동전>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중의 트라우마가 계급사회인 조선 시대에서는 현실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계층적인 차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역시 <박씨전>의 경우처럼 초현실적인 도술의 판타지한 지평이 동원되는 경우다. 미디어소설로 재생산 되면 드라마 <쾌도 홍길동>이 된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영웅소설적 영웅서사를 재생산한 일련의 미디어소설들에서는 민중이 영웅인 주인공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치지 않고, 이념적 의식화와 각성을 거쳐서 힘을 모아 그를 돕는 집단적 연대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영웅과 민중 사이의 의사형제관계는 이처럼 미디어소설에 와서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적 연대 관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보다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중적 영웅서사원형인 아기장수서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인공 영웅과 민중 사이의 집단적인 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 부모·형제와 남의 부모·형제를 포괄하는 민중 집단 중에 아기장수를 돕는 조력자의

존재는 기본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부모가 아기장수 출생 직후에 바로 자식을 살해하지 않고 일정한 시기까지 양육하거나 잇달아 태어나는 아기장수 형제들을 연속 살해한 끝에 막내 아기장수는 양육하는 변이형들에서 민중인 부모가 조력자로 변이해 가능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득층의 이념을 내면화 한 부모가 그것을 전복하고자 하는 자식의 이념을 공유해 나가는 서사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기장수서사의 민중적인 집단 연대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구체화 된 작품이 바로 드라마 <각시탈>이다. 드라마 <각시탈>에 등장하는 민중들은 각시탈의 부모를 비롯하여 종로 시장통 상인들, 유랑극단 단원들, 독립군 단원들 할 것 없이 아기장수를 돕는 집단적 연대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집단적 연대성은 의식적인 각성과 영웅적 지평 확대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중들은 주체적으로 기존 질서에 반하는 항일의 이념을 각시탈과 공유하며, 민중 개개인은 약하지만 계속 살아나와서 저항하는 집단의 집체성은 단지 시간이 걸릴 뿐 기존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이들 민중은 최종 대단원에서 각시탈을 나누어 쓰고 조선 총독부 관사로 진격하면서 스스로가 한 명의 민중영웅으로 거듭난다. 약한 민중이라도 모이면 그 집체성이 영웅만큼 강할 수 있으며, 주체적 의지와 신념만 가지고 있다면 민중도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민중영웅의 집단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3. 코리안 슈퍼히어로물과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의 서사코드적 차이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의 탄생 계기 또한 부모의 트라우마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슈퍼맨의 영웅적 각성은 부모가 졸업 파티날 절대악인 빈딕티빅스(vyndkrvx)의 계략으로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서부터다. 자신의 타고난 슈퍼파워를 가지고도 부모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을 자책하는

슈퍼맨에게 그 힘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쓰라고 유연하면서 시민들을 악의 무리로부터 구해주는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의 시조격인 슈퍼맨이 탄생한다. 배트맨의 경우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강도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도시의 범죄를 일으키는 악당들과 대결이 시작되고, 원더우먼(wonder woman)은 아버지가 탄 전투기가 악당들에 의해 추락해서 죽은 이후부터 자신의 타고난 초인적 능력을 악당 교화에 발휘한다. 스파이더맨의 경우는 초인이 되고 나서도 도둑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도망가게 놔두는데, 그 도둑이 차를 뺏으려고 죽인 사람이 자신을 길러준 삼촌²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악의 무리들과의 전쟁에 나선다. 심지어 플래쉬맨(flashman)은 악당들의 음모로 범법자로 몰려죽은 아버지의 사후에, 그의 결백을 믿고 있던 어머니마저 죽자 아버지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악의 무리와 대적하는 영웅의 길로 나선다.

이들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들은 타고 난 초능력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얻게 된 능력이 있어도 이를 타인들을 위해 쓸 생각을 하지 않다가 남의 부모에 의해 내 부모가 죽고 나서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악당들에게서 구해주는 슈퍼히어로로 탄생된다. 초인적인 능력을 악의 무리 소탕에 쓰지 않고 있었던 자신의 방관적 자세 때문에 내 부모의 죽음이 초래 되었다는 트라우마가, 악당들과 대결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슈퍼히어로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의 서사코드 역시 코리안 슈퍼히어로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부모의 트라우마가 나의 트라우마로 전이되고, 이러한 부자(父子) 간의 혈연적인 관계가 주인공으로 하여금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약자를 악의 무리로부터 구원하는 영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야기하고 나와 대결하는 악당이 세계 질서의 이념만 달리할 뿐인 반대의(opposite)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 스파이더맨의 삼촌은 낳아준 부모는 아니지만 스파이더맨의 실질적인 양육을 맡았다는 점에서 길러준 부모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각자 구축하거나 따르고자 하는 이념의 질서를 달리하는 영웅이 아니라 순수한 악(pure evil)일 뿐이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원형이 되는 DC 코믹스(DC comics) 계열²¹⁾에서는 이처럼 영웅의 반대 이념편에 선 반영웅이 아니라 절대악인 악당들을 빌런(villain)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악당들은 내 부모와 이념을 달리하며 세계의 주도권을 먼저 쥐는데 성공한 남의 부모가 아니다. 의사가족관계(擬似家族關係)로 치환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악당들은 주인공인 영웅의 유사형제들이 아니다. 나의 트라우마로 전이된 부모 트라우마의 극복 과정이 형제 트라우마의 극복 문제로 연계되는 코리안 슈퍼히어로물과는 달리, 절대 악으로 존재하는 빌런들은 이념을 달리하는 의사(擬似) 영웅형제들로 치환되지 않는다. 할리우드 슈퍼히어로가 대결하는 악당은 내 부모를 죽인 남의 부모의 자식들이나 혹은 나와 이념을 달리하는 남의 부모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슈퍼맨>의 빈덕터빅스나 <배트맨>의 조커(joker)·투페이스(two-face) 등이 이러한 빌런에 해당한다.

악당들과의 대결을 통해 구원하는 대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들이 악당들로부터 구출해 내는 대상이 약자(弱者)인 것은 코리안 슈퍼히어로들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물리적·정신적·정신적 측면에서 악당이나 영웅에게 열등한 존재인 약자이지 계층적·사회적·정치적 측면의 약자는 아니다. 전자가 되면 시민(市民)이 되고, 후자가 되면 민중(民衆)이 된다. 배트맨이나 아이언맨(ironman)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건, 스파이더맨처럼 가난에 허덕이건 관계없이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로는 모두

21)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원형이 된 DC 코믹스는 1934년에 전신인 <뉴 판>이 발간되면서 시작되었다.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가 1939년에 월트 디즈니의 출판만화 부분 자회사로 설립되어 60년대에 본격적으로 코믹스 시장에 진출한 후발주자다. 이 둘은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원형이 된 코믹스 업계를 나란히 양분하고 있으며, 아예 직접 슈퍼히어로 영화 제작까지 겸하고 있기까지 하다. DC 코믹스의 대표작은 <슈퍼맨>·<배트맨>·<그린랜턴> 등이고, 마블 코믹스의 대표작은 <슈퍼맨>·<엑스맨>·<아이언맨> 등이다.

자신의 구출 대상인 약자들과 함께 전자인 시민의 일부가 된다. 하층출신인 민중영웅 뿐만 아니라 상층출신의 귀족영웅들도 계급적 약자인 민중을 구원하는 위민의 이념 지향성을 보여주는 코리안 슈퍼히어로들과는 다르다. 부모·형제 트라우마가 집단의 문제로 확산된 계급적 차원의 민중성은 코리안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코드적 전유물인 것이다. 게다가 코리안 슈퍼히어로는 민중을 넘어서 민족적인 차원의 총체적인 집단 트라우마 극복의 문제까지 껴안는다. 당연히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점이다.

영웅이 악당들로부터 구출해내는 대상들이 영웅과 집단적인 연대성을 구축하느냐의 여부도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와 코리안 슈퍼히어로 사이의 중요한 서사코드적 분지점이 된다.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약자인 시민들은 악당이 야기한 트라우마 상황을 영웅이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존재지, 세계의 질서와 관련한 이념의 문제를 영웅과 공유하지는 않는다.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서 영웅에게 힘을 보태거나 구출해주려고 나서지도 않는다. 이처럼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영웅과 시민 사이에 집단적인 연대성이 부재한 이유는 세계질서 구축과 관련된 이념 문제로 연계되어 있는 유사부모형제(類似父母兄弟)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시민들은 물리적·정신적·정신적 파워와 선악의 윤리성의 측면에서 빌런의 반대편에 위치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반-빌런(opposite villain)이다.

이러한 서사코드의 차이는 영웅의 개인적인 행로마저도 부모-자식·형제의 가족관계와 그것이 확장된 집단관계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한국문화의 특수한 아이덴티티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관계성 속에 개인의 실존적 좌표를 위치시키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영웅의 일생에도 적용된 결과다. 반면,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문화적 원형은 나 이외의 타자를 불문곡직하고 쓸어 버리는 것을 지향하는 서부 개척주의다. 소거지향주의(消去指向主義)에 유사가족의 관계성에 기반한 영웅의 실존적 트라우마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물론, 후발주자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가 DC 코믹스가 구축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의 서사원형에 대항하기 위해 전통적인 서사코드를 해체하면서, 부모·형제의 관계성에 기반 한 영웅의 실존성 문제, 영웅의 구원 대상들의 집단성 구축 문제 등이 요즘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는 하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빌런들은 영웅이 만들거나 지켜내려고 하는 세계질서의 이념에 반하는 자신들만의 이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반-빌런인 시민들은 영웅을 돕거나 집단적으로 연대하게 되었다. 예컨대, 시리즈의 출발 초기에는 단지 절대 악의 화신이지만 했던 <스파이더맨>의 닥터 옥터퍼스(doctor ockambush)는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하는 진화를 거듭한 끝에, 반-영웅의 단계를 지나 현재는 아예 피터 파커를 대체하는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났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amazing spiderman)>(2012)²²⁾ 후반부에서 닥터 옥터퍼스는 자신이 아예 스파이더맨이 되기로 결심하고 피터 파커의 육체를 빼앗는데, 이 과정에서 피터 파커가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신념과 가치들을 이해하게 된다. 가장 최근작인 <슈페리어 스파이더맨(superior spiderman)>(2013)²³⁾부터는 애초 빌런이었던 닥터 옥터퍼스가 악한 영웅에서 선한 영웅으로 교화되고, 피터 파커(peter parker)의 이념을 계승하여 뉴욕 시민들을 수호하는 후계자이자 스파이더맨을 초월한 스파이더맨인 슈페리어 슈퍼맨(Superior Superman)으로 거듭나고 있다. <배트맨 비긴스(batman begins)>(2005)²⁴⁾의 헨리 듀카드(henry ducard)는 억만장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가 살해당한 이후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구출·양육해 주는 스승이자, 동시에 부모를 죽였던 악당 라즈 알 굴과 동일인물이다. 시리즈의 출발 초기에는 순수 빌런으로 존재했던 라즈 알 굴(ra's al ghul)

22) <어메이징 스파이더맨(amazing spiderman)>, marvel comics, 2012.

23) <슈페리어 스파이더맨(superior spiderman)>, marvel comics, 2013.

24) 마블의 <스파이더맨>의 성공 이후로 DC가 <배트맨>을 새롭게 재창작한 시리즈의 첫작품이다.

이 헨리 듀카드라는 스승의 새로운 가면을 썼다. 악당이 절대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과 유사부모관계에 있는 반-영웅일 수 있다는 사실을 형상화 하기 위한 캐릭터의 재창조로 보여진다. 한편, <배트맨 비긴스>부터 배트맨은 고담시의 고아 아이와 세계질서에 대한 이념을 공유하는 유사형제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를 통해 배트맨은 악당으로부터 시민들을 구출해주되 그들과 일체의 관계도 맺지 않는 단절된 존재에서 유사형제관계에 있는 집단적 연대성을 획득하고 있다. <슈퍼맨>의 전통적인 빌런인 렉스 루터(lex luthor)는 최근 시리즈인 <맨 오브 아이언(man of steel)>(2013)²⁵⁾에 와서 슈퍼맨의 슈퍼 파워야 말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무력화 시키는 악의 근원이라는 나름의 이념을 세우고, 인간을 위해서 슈퍼맨과 대결하기 위해서 인조 슈퍼맨들을 제조해내기 시작하고 있다. 렉스 루터가 내세우는 이념은 초월적인 파워에 대항하는 인간적인 희망인데, 애초 시리즈의 시작점에서 슈퍼맨이 악당과 대결하기 위해 영웅으로 각성하면서 착용한 슈트의 S자가 클립톤 행성어로 희망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빌런의 또 다른 영웅화가 최근의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이 천착하는 서사적 변모 지점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적 변모 지점들을 통해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 코리안 슈퍼히어로물 사이에는 교집합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코리안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원형에서 확인되는 전통적인 서사코드가 동서의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성을 획득해나갈 가능성도 있음을 이러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진화 과정 속에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서사적 변형들이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적 원형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서사원형의 해체 지점을 돌아 다시금 전통적인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의 서사코드

25) <맨 오브 아이언(man of steel)>, 감독:잭 스나이더, 출연:헨리 카빌, 2013.

에 대한 요구가 향유층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배트맨>의 재창작 시리즈의 종편인 <다크 나이트(dark night)>(2012)²⁶⁾를 거치면서 향유층은 조커나 펭귄맨(penguinman) 같은 강력한 빌런들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으며, DC 코믹스가 완성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원형을 해체하기 위해 출현했던 마블의 <아이언맨>도 3편을 기점으로 관계와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끝내고 전통적인 빌런과의 대결을 부각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이는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코드가 원천적으로 코리안 슈퍼히어로물의 그것과는 다른 지점에 위치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슈퍼히어로물의 서사원형을 한국고전서사에서 찾고 이를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 비교하여 서사코드적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한국슈퍼히어로물의 고유한 서사적 정체성의 일단을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에서 세계의 문제는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모·형제 트라우마(trauma) 문제로 치환되어 있다. 세계의 일부인 적대자는 내 가족의 일부인 부모이거나 형제이며, 나의 개인적·집단적 가치의 실현은 부모·형제 트라우마에 의해 촉발된다. 나의 영웅으로서의 탄생은 부모·형제 트라우마를 치유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형제 트라우마는 부모 트라우마의 부산물이다. 나와 부모 사이의 부자관계가 나와 형제 사이의 형제관계를 결정지으며 형제 트라우마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형제 트라우마를 극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모 트라우마는 치유의 종착점에 도달한다. 부모 트라우마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다. 자식인 영웅의 인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트라우마에 대응하여 그것을 치유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영웅적인 과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으로 부모가 개입한다거나,

26) <다크 나이트(dark night)>, 감독:크리스토퍼 놀란, 출연:크리스찬 베일, 2012.

세계에 대한 부모의 대응방식과 자식의 그것이 충돌한다거나, 부모가 구축한 질서가 자식의 영웅적인 과업에 장애가 된다거나 하는 식이다. 어떤 식이든 부모가 세계의 질서에 대응하는 방식은 자식의 영웅적 과업 성취 과정 내내 일종의 카운터 파트(counter part)로 작용한다. 여기서 신화적 영웅과 민중적 영웅은 부모의 캐릭터, 즉 부모와 세계와의 관계,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의 이행 방식에 따라 분기된 서사가지의 대척점에 위치하게 된다.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와 코리안 슈퍼히어로의 차이점은 내 부모의 트라우마를 야기하고 나와 대결하는 악당이 세계질서의 이념만 달리할 뿐인 반대의(opposite)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각자 구축하거나 따르고자 하는 이념의 질서를 달리하는 영웅이 아니라 순수한 악(pure evil)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악당들은 내 부모와 이념을 달리하며 세계의 주도권을 먼저 쥐는데 성공한 남의 부모가 아니다. 의사가족관계(擬似家族關係)로 치환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악당들은 주인공인 영웅의 유사형제들이 아니다. 나의 트라우마로 전이된 부모 트라우마의 극복 과정이 형제 트라우마의 극복 문제로 연계되는 코리안 슈퍼히어로물과는 달리, 절대 악으로 존재하는 빌런들은 이념을 달리하는 의사(擬似) 영웅형제들로 치환되지 않는다. 악당들과의 대결을 통해 구원하는 대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들이 악당들로부터 구출해 내는 대상은 물리적·정신적·정신적 측면의 약자인 시민이지 계층적·사회적·정치적 측면의 약자인 민중이 아니다. 상층출신의 귀족영웅들도 계급적 약자인 민중을 구원하는 위민(爲民)의 이념 지향성을 보여주는 코리안 슈퍼히어로들과는 다르다. 부모·형제 트라우마가 집단의 문제로 확산된 계급적 차원의 민중성은 코리안 슈퍼히어로물의 서사코드적 전유물인 것이다. 게다가 코리안 슈퍼히어로는 민중을 넘어서 민족적인 차원의 총체적인 집단 트라우마 극복의 문제까지 껴안는다. 당연히 헐리우드 슈퍼히어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점이다.

- 권도경,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서사각색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건국시조의 사회부조화성(社會不調和性)과 분리(分離)·이주(移住)의 문제」, 『비교문화연구』 34,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KCI 등재.
- _____, 「건국신화적 문화영웅일대기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국제어문』 제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KCI 등재.
- _____, 「동북아(東北亞) 한류드라마 원류로서의 한국고전서사와 한(韓)·동북아(東北亞)의 문화공유 경험」, 『동아연구』 제33권 제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KCI 등재.
- _____, 「애정전기소설의 서사코드와 한류드라마 <가을동화>-한국언어문화의 형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교육을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제4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3, KCI 등재.
- _____, 「아기장수전설의 서사가지(narrative tree)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선택지, 그리고 드라마 <각시탈>의 아기장수전설 새로 쓰기」, 『국어국문학』 제163집, 국어국문학회, 2013, KCI 등재.
- _____, 「동남아 한류드라마의 한국고전문학 재생산과 한(韓)·동남아(東南亞) 서사코드」, 『아태연구』 20권 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3, KCI 등재.
- _____, 「병란(丙亂) 트라우마 대응 고소설에 나타난 향유층의 집단서사와 영화 <최종병기 활>」, 『고전문학과교육』 2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KCI 등재.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971.
- _____,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_____,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 최래옥,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한국설화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1, 한국민속학회, 1979.
- 천혜숙, 「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제1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Abstract〉

Reproduction of Korean Classical Narrative Archetype and Birth of Korean Superhero Works Focusing on Narrative Code's Distinctives with Hollywood Superhero Works

Dokyung Kwon
(Semyu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narrative code's distinctives between Korean superhero's works and Hollywood superhero's works and original narrative identity of Korean superhero's works, finding narrative archetype of Korean superhero's works in Korean classical narrative archetype and comparing this with Hollywood superhero works. A problem of world in Korean classical hero's narrative archetype is replaced with the problem of parents's and brother's trauma. An antagonist being as my world's part is parents or brothers being as realization of my family's part and my personal-collective value is waked by parents's and brother's trauma. My birth as hero is achieved in the course of curing parents's and brother's trauma.

A narrative code's distinctives between Korean superhero's works and Hollywood superhero's works is that villain that causes my parents's trauma and fights with me isn't a hero opposing me merely ideologically in world order. It's because Hollywood superhero's antagonist is pure evil. So, antagonist of Hollywood superhero's works isn't replaced as similar family's relationship. Besides, objects that Hollywood superheroes rescue from antagonist are citizens, not public. The character of masses that parents's and brother's trauma is expanded to collective problem is narrative code's preserve of Korean superhero's

works and is sublimated problem of national trauma's overcome.

Keywords : Korean superhero, hollywood superhero, villain, Korean hero, narrative archetype, narrative code, media, reproduction, Korean classical narrative, narrative code's distinctives, narrative identity, parents' brother's trauma, antagonist, world order, citizen, public, national trauma.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 - 4.5 / 게재확정일 : 4.10
